

『眉巖日記』의 저술배경과 작가의식

이연순*

<차례>

1. 서론
2. 『미암일기』의 저술배경
 - 1) 乙巳士禍로 인한 流配 체험
 - 2) 日記에 대한 效用的 가치 인식
3. 『미암일기』에 나타난 작가의식
 - 1) 당대 公論에 대한 증언의식
 - 2) 訛傳된 역사의 교정의식
4. 결론

<국문초록>

미암 유희춘은 조선의 마지막 士禍였던 乙巳士禍로 인해 유배를 가서 종성에 서 19년간을 보낸 을사사림의 한 사람이다. 『미암일기』는 작자 유희춘이 유배를 겪고 해배되어 조정에 돌아와 죽기까지 10년간 기록한 일기로, 선조 초기 조정에 서 을사사화와 관련해 雪冤과 僞勳 削除 등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을 증언하여 놓은 부분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에 미암은 자신의 평가나 입장에 대해 직접 언급하여 밝히는 한편, 見聞을 통해 다른 이들이 언급한 당시의 公論에 대해서도 충실히 기록하여 놓았다. 또한 이미 역사를 통해 잘못 전해졌거나 근거 없는 설에 대해서는 역사를 깊이 상고하여 알아낸 사실과 주자의 언급이나 그 학문을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을 밝혀놓은 것이다.

이러한 미암의 일기 기록은 자신의 일기가 훗날 史草에 실릴 것을 염두에 두고, 당대의 역사를 후대인들에게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 보인다. 이 점에서 본고가 미암의 작가의식과 그 저술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당대 문학과 관련하여 의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眉巖 柳希春(1513~1577)은 해남 출생으로 호남에 근거지를 두고 하서 김인후와 함께 호남의 학맥을 전승하고 16세기 당대 중앙에 진출한 호남의 걸출한 사림문인이었다.

그러나 미암과 함께 수학한 하서는 1545년 인종 승하 이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에 내려가 은거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비분강개한 문학을 표출하고 학문을 하였던 데 반해, 미암은 중앙에 머물러 있다가 그해 을사사화를 만나 그로부터 이년 뒤인 1547(명종2)년에 일어난 丁未土禍에 화를 입어 결정적으로 유배에 처하게 되었다. 미암은 처음에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종성에 이배되어 그곳에서 학문과 저술활동에 몰입하였다.

19년간 유배를 마치고 선조 즉위와 함께 1567(정묘)년 해배되어 다시 조정에 등용된 미암은 이때부터 경연활동에 참여하며 죽기 전까지 10년간 『미암일기』를 써서 남겼다. 기존에 미암일기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에서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이 방대한 양의 일기를 쓰게 되기까지 저술 배경과 미암의 작가의식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주목하지 않았다.

본고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암이 일기를 저술하게 된 배경과 일기에 드러난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암은 당시 일기 문학이 성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직접 乙巳土禍로 인해 유배를 체험하고 조정에 돌아와 일기 기록을 남겼다. 해배 후 경연에서 이루어진 선조 초기의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 당시의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당대 공론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언하려는 의식을 일기에 드러냈던 것이다. 또한

유배지에서 연구한 학문을 바탕으로 訛傳된 역사에 대한 교정의식도 드러냈다. 이는 역사적으로 잘못 전해진 사실들에 대해 철저히 상고하고 바르게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본문에서 살펴보고 의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미암집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34권)과 眉巖日記草 (조선총독부 刊, 한국사편수회, 1936)이다. 본문에서 이 자료들에 대해 인용할 때는 책 이름을 제외하고 권수와 일기의 날짜만을 기재함을 밝힌다.

2. 『미암일기』의 저술배경

1) 乙巳士禍로 인한 流配 체험

미암 유희춘은 본관이 善山이고, 부친 柳桂隣과 모친 崔씨 부인 사이에서 1513(중종8년) 海南에서 출생했다. 부친 유계린은 崔山斗의 문인이었으며, 어머니는 『漂海錄』을 지은 崔溥의 딸이고, 미암의 형은 柳成春(생몰년 미상)이다. 미암은 이러한 아버지 유계린과 외조부 최부에게 家學으로 학문을 전수받고, 스승 崔山斗, 金安國 등에게 사사 받았다. 그리하여 20세에 大菴寺 등지에서 글공부를 하다가,¹⁾ 21세 나주목사가 실시한 도회시취에서 <繩墨賦>로 次上을 하여 합격하고, 23세(1535년)에 <棄繻賦>로 장원을 하였다.²⁾ 그리고 25세에 생원시에 뽑히고 이듬해 文科 別

1) 『일기』, 1568 무진년, 822, 1569 기사년, 122, 권1, <困學>行年二十二 始知味眞腴 獨坐上院寺 潛心紫陽謨 (후략)

2) 『일기』, 1571 신미년, 525, 追憶癸巳年五月望日 都會試取時 余登斯樓 作繩墨賦 以次上參榜 因居接于此州之校 又再登斯樓 作賦連居魁 乙未五月望 復觀都會試 取 又以棄繻賦居魁 儒生時 四登此樓 今追戲而作小詩云 (후략)

試에 丙科로 급제하면서 수학기를 마치게 되는데, 이 때 晦齋 李彦適이 고사관으로 있다가 미암의 문장을 기이히 여겨 취하였다고 전한다.³⁾ 이렇게 중앙에 出仕한 미암은 30세에 세자시강원의 設書가 되어 인종을 補導하는 직분을 맡고,⁴⁾ 32세에 홍문관수찬에 올랐는데 이때 미암은 어머니 崔氏 부인을 봉양하고자 청하여 茂長縣監에 제수되었다. 이에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봉양하였고, 현을 교화하여 잘 다스려지게 하였다.⁵⁾

그러나 미암이 33세 되던 1545년에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였는데, 이 해에 인종이 바로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大尹과 小尹, 곧 중종의 첫째 비 章敬王后 윤씨의 오빠 尹任과, 중종의 둘째 비인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형이 서로 대치하다가, 인종이 돌아가시자 윤원형이 윤임 일파를 고하여 죄를 주려 일을 꾸며 윤임, 유관, 유인숙 세 사람이 각기 유배를 가고 파직되며, 관직이 갈리게 되었다.⁶⁾

당시 송인수의 추천으로 다시 홍문관 수찬이 된 미암은 동료들과 함께 윤임과 유관, 유인숙에게 유배와 파직을 행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틈을 올리고, 자신들의 파직을 청하였다. 그러나 두 번이나 윤희되지 않자

3) 권 20, 李好閔, <諡狀>中廟三十二年 丁酉中生員試 次年 戊戌擢別舉丙科 晦齋 李公爲考官 異其文而取之

4) 권 20, 李好閔, <諡狀>三十七年壬寅正月 轉世子侍講院說書 時仁廟在東宮 公力以輔導爲己任

5) 최익현, 『勉菴集』 권 25, <眉巖先生柳公神道碑并序>, 已而弘文館修撰兼司書 以母夫人在鄉 請乞暇還省 中廟特除茂長縣監 使以便養 治先教化 一境翕然 권 20, 李好閔, <諡狀>時崔夫人在家 公爲晨昏之奉 浩然有歸思 五月 又乞暇 六月 解司書 中廟量其意 特命銓曹 授公茂長縣監以便養 縣繁雄 素號難治 公莅事勤敏 庶務畢舉 而尤急先教化 親設養老宴 兼行防弊宴 又除徵斂之無名者 一縣翕然

6)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 <柳希春傳>, 及仁廟賓天 任失勢 小尹始欲釋憾以逞 顧一時賢人君子無可從己者 廣引貪功喜亂及不得志者之徒 晝夜聚謀 未得其便

백인걸이 끝까지 항의하다가 문정왕후가 노하여 백인걸을 옥에 가두고 송회규와 미암은 파직이 되었다. 이후 열흘 동안 세 사람을 죽이는 등 乙巳士禍가 일어났다.⁷⁾ 그리고 2년 뒤 미암이 35세(1547년)에 되던 해 9월에 정언각, 이기 등이 전라도 양재역에 비방서를 壁書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미사화가 일어나고, 을사년 여러 사람에게 크게 죄를 더하여 미암도 제주도에 보내졌다가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었다.⁸⁾

『을사전문록』에서는 당시 상황과 미암의 인물됨을 “오직 몸을 바쳐 나라 위하는 것만 알았고, 사생영욕(死生榮辱)으로써 그 지키는 지조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백령·김광준 등과 더불어 말할 적에 조금도 굽혀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고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낮빛을 바로 하여 곧게 남의 마음속을 헤쳐 가며 공격하였으니, 선생이 화를 당함은 진실로 당연한 결과” 라고 평하며, 그 때문에 미암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제주가 고향과 멀지 않으므로 종성에 이배하였다고 한다.⁹⁾ 동향인 임백령이 강직한 미암을 제 편에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하고 그에 보복을 하려 한 것

-
- 7)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 <柳希春傳>, 先生與執義以下同辭引嫌啓曰 臣等以爲 三人雖有可論之事 當此主少國疑之時 姦細之徒 胥動浮言 論啓大臣 甚非其時 適以陷姦計而增士禍議不能一而罷 又不能即達於天聽 請賜斥免不允 翌日再辭不允 宋公希奎大言曰 尹元衡主張密旨 傳播外朝 熒惑人聽 當首劾此姦明示天討 而今日已迫曠暮 門將閉矣 出納啓辭 似非其時 姑俟明日就職而後爲之 未晚也 先生與諸人良以爲然 遂皆退 而白公仁傑遲之 獨留抗啓 文定大怒 下仁傑獄 命盡罷希奎等職 先生與焉 不旬日 三人戮而大禍作矣
- 8)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 <柳希春傳>, 其與百齡光準語也 不少降以自貶 危言正色 直發其肺腑而剖擊之 先生之受禍固其所也 是後群憾合勢 必欲置先生死地 以濟州去家鄉不遠 移配鍾城
- 9)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 <柳希春傳>, 蓋先生以孤身宦京師 直道而行 不隨人俯仰 士禍之始 百齡以鄉曲居要地 力欲汲引以爲助 使先生一言資之 則立取隆顯矣 而先生惟知徇身爲國 不以死生榮辱變其所守 其與百齡光準語也 不少降以自貶 危言正色 直發其肺腑而剖擊之 先生之受禍固其所也 是後群憾合勢 必欲置先生死地 以濟州去家鄉不遠 移配鍾城 이상 본문 인용은 국역본에 따름.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미암은 결국 종성 유배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암은 적소에 이르러 곤경에 처했는데도 뜻을 지켜 天命과 같이 편안히 여기고, 밤낮으로 생각을 깊이 하며 저술을 계속하였다. 유배지에서 미암은 교육과 저술활동에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해배 후 경연에서 “유배지에서 십년의 공을 들여 四書を 연구하였다.”고 회억하는 기록을 통해 이 시기 주자학에 매우 침잠했으리라 추정된다.¹⁰⁾ 또한 미암이 해배되자마자 속몽구』간행을 서두르면서 이 책에 “17년 공을 들였다.”¹¹⁾고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유배 기간 동안 이 저작에 힘쓴 사정을 알려준다. 『詩吐釋』도 미암이 유배지에서 저술하였다. 이 책은 “太浩와 함께 종산에서 상의하여 정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¹²⁾ 태호는 유경심의 호로, 유경심은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회인, 정주 현감을 거치며 등용되었으나 또다시 윤원형에 반대하여 종성부사로 진출되었는데, 이때 미암이 종성에 유배가 있어서 같이 만나 교류하며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미암은 적소에 있으면서도 가슴속 기운은 충만하였다고 전한다.¹³⁾ 종성은 六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말갈과 가까워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숭상하고 文字를 아는 이가 적었는데 미암의 풍모를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자가 많이 이르러, 미암이 재질을 따라 교육하여 멀리서도 다투어 찾아와 뜰에 가득하였고, 말년에는 문학이 매우 성하였다.¹⁴⁾ 그러나 이 시기 미

10) 『일기』, 1574 갑술년, 10.25, 又曰 (전략) 臣謫居時 用十年之功 研窮四書

11) 『일기』, 1568 무진년, 7.5, 續蒙求(중략) 十七年用工之書

12) 『일기』, 1568 무진년, 3.1, 李鷗壽送良醬·菜蔬及詩吐釋來 詩釋 乃己未年與太浩同議定于鍾山者也

13)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 <柳希春傳>, 三年二月至謫所 先生處困遂志 安之若命 方且覃思著述 口誦手抄 夜以繼日 胸中之氣沖如也

『國朝寶鑑』 26권, 宣祖條3 선조10년(丁丑,1577), 其在謫也 潭思著述 夜以繼日

암의 문학이 성하였다고 하는 기록에 대해 실제 어떤 정도였는지는 일기를 통해 찾아보기 어렵다. 유배지에서 쓴 일기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나 현재 남아 있지 않고 해배 후의 일기만 전하고 있는 형편이어서,¹⁵⁾ 미암의 유배기 문학에 대해서는 문집에 남아 있는 詩文을 중심으로 그 시기 작품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¹⁶⁾

이후 1565(명종 20)년에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을 내쫓자는 공론이 일자 을사사람들이 伸雪되면서, 미암도 53세에 우선 恩津에 이배되었다.¹⁷⁾ 은진에 移配된 지 2년 뒤인 1567년에 선조 즉위와 함께 미암은 해배되어 그 해 10월 경연관 겸 성균관 直講을 제수 받고 서울로 올라간다. 오랜 유배기에서 벗어나 조정에 돌아온 미암은 이때부터 再仕宦期를 맞게 된다. 미암은 조정에서 경연활동을 통해 聖學을 진강하고, 1571년 전라감사에 제수되어 고향 해남에 내려왔다가, 그해 10월 대사헌에 임명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부제학, 예조참판, 이조참판 등 요직에 오르며 경연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재사환기에 미암이 힘쓴 일은 士林으로서 士禍에 희생된 사람들의 伸冤을 복원한 일이다. 당시 기묘사람인 조광조의 伸雪을 주장하며 조광조를 추송하여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을사사화에 희생된 사람들을 복구하고

14)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 <柳希春傳>, 六鎮邊鞵鞞 俗尙弓馬 少識字者 先生至聞先生之風 願學者衆 先生因材誘掖 教誨諄悉 遠邇爭趨 戶庭恒滿 至季年文學彬彬焉

15) 송재용, 『『미암일기』의 서지와 사료적 가치』, 『퇴계학연구』제12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8, pp.135~136

16) 미암의 문학은 시기적으로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과 해배 후 지어진 작품으로 크게 나뉘는데, 『미암집』의 권1은 유배지에서 지은 詩이고, 권2는 해배 후의 시이며, 권3은 유배지와 해배 후 지은 文작품이 함께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유배기에 지은 권1에 수록된 시는 특히 오언 또는 칠언으로 된 장편 古詩 형태의 작품이 많다.

17) 『大東野乘』, 『乙巳傳聞錄』, 李中悅子, <柳希春傳>, 乙丑明廟二十年也 在位久 聖治日新 因公論放黜元衡 稍雪乙巳被罪人 命移恩津縣

위훈을 받은 인물들의 관작을 삭탈하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士林의 연원을 밝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등 四賢을 文廟에 배향하고자, 선조에게 명을 받아 이들 사헌의 저술을 정리하여 중국의 『伊洛淵源錄』의 체제를 본 따 『국조연원록』을 저술하는 데도 애썼다. 이처럼 『국조유선록』의 편찬에 주도적으로 힘쓴 것은 미암이 을사사화를 겪은 뒤 사회로 희생된 역대 사림을 추송하고자 하는 의식을 분명히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개인적으로는 매일 '일기'를 써서 죽기 전 날까지 십 년간을 기록한 미암일기를 남긴다. 미암은 을사사화를 겪고 그 뒤에 士禍에 관해서 따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바로 정계에 재등용된 날부터 일기를 써나가며, 당시 이와 관련하여 중앙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여 남기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2) 日記에 대한 效用的 가치 인식

미암이 남긴 문학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日記에 대해 작자인 미암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살펴보고자 한다. 미암이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 자신없어하면서도, 일기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한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미암이 일기의 효용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고는 파악하였다. 이는 미암이 단순히 '일기'라는 문학의 형식을 인식한 면에서, 그리고 자신이 10년간 일기를 써나가게 된 동기와 그 안에 담긴 구현의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암이 단순히 '日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미암은 日記라는 용어를 <漂海錄跋>의 文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일기는 단순히 '날마다 기록하는'의 의미를 가지고 쓰였다. 미암은 해배 후 외조부인 최부의 저작 『표해록』을 간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힘쓰고 발문을 써서 편찬의 뜻을 드러내었는데 발문 앞부분에서는 이 책이 쓰이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며 그 형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외조부 최부가 명을 받아 제주로 가던 중 부친상을 당해 분주히 가다가 중국까지 가서 표류하게 되었고, 이후 돌아와 성종의 명으로 ‘日錄’을 찬진해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여기서 ‘일록’은 ‘일기’와 같은 개념으로 조선후기에 더 많이 나타나는 용어이나, 이미 미암 당대에도 쓰인 예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최부의 『표해록』은 일기체 구성으로서 날짜순에 따라 종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는 里數 山川, 産物, 風俗 등을 기록한 聞見別單이 삽입되어 있다.¹⁹⁾ 미암은 이 책의 분량이 세 권을 넘지 않으나 그 안에 중국 한 지방의 온갖 자연과 인간 만물이 찬연히 열거되어 있어, 최부 선생의 經世하는 재주를 일부는 볼 수 있다고 칭찬하였다.²⁰⁾ 곧 어느 한 지역을 자세하게 ‘날마다 기록’한 책은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 뜨게 하기에, 기록한 이의 경세하는 재주를 볼 수도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기는 쓰는 사람 자신은 다 아는 얘기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읽는 이에게는 낯설게 다가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롭게 배워가는 재미를 주는 매력이 있다. 최부의 『표해록』과 같은 기행일기의 경우는 특히나 낯선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대감, 그곳의 풍물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읽는 이에게 더욱 흥미를 전해주었을 것이다. 또한 작가가 보고 듣고 겪은 일들뿐 아니라, 그 안

18) 권3, <漂海錄跋>, 錦南崔先生諱溥 字淵淵 希春之外祖父也 以經術氣節 遭遇成廟 擢實侍從 嘗奉命往耽羅 適奔父喪 爲風所逆 漂到中國之台州 還至都城外 上命撰進一行日錄 覽而嘉之 遂俾藏于承文院

19) 윤치부, 『표해류 작품의 종합적 고찰』, 『고전산문연구』1, 태학사, 1998, p.155

20) 권3, <漂海錄跋>, 其文字卷不過三 而不惟狀大洋變化 自甌徂燕 一路山川土產 人物風俗 粲然森列 而先生經濟之才 亦可得其什一 求多聞務博覽之士 願見者衆矣 而至今八十年間 未有鈇梓以廣其傳矣

에 언뜻언뜻 숨어있는 포장되지 않은 은밀한 내면세계까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당시 읽는 이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지 헤아릴 수 없다. 미암은 그런 일기 기록이 주는 효용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실제 자신이 일기를 저술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외에도 미암은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 패설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허봉이 미암에게 어숙권의 패설이 불만하다고 하였는데 미암은 그 책을 등사하고 싶어 하였고²¹⁾, 얼마 뒤 봉상시書員인 수경에게 稗官雜記 를 베껴 쓰도록 하였다.²²⁾ 그리고 미암은 어숙권을 초청해 술을 마시며 그에게 불 만한 책을 물어보고, 패관잡기를 저술한 데 격려하여 지필묵을 보내기도 하였다.²³⁾ 당시 미암은 어숙권의 『패관잡기』와 같은 패설류의 독서물을 읽으며 저술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그 효용에 대한 점은 구체적으로 밝혀놓지 않았으나, 관심을 표명한 데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았으리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어숙권이 불 만한 책으로 國朝寶鑑, 『龍飛御天歌』, 梅溪叢話 등을 말했는데, 여기에도 매계총화』와 같은 패설문학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혔던 사정을 알려준다.²⁴⁾

미암은 일기의 기록이 주는 정확성을 신뢰하였다. 기록을 보지 않고는 잘못된 정보를 말할 수도 있으나, 기록물이 남아 있으면 다시 상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암이 실제 경연에서 선조가 해남에서 제주까지 며칠이나 걸리느냐고 질문했을 때, 언뜻 떠오른 기억으로 외조부 최부가 경차관으로 하루 만에 당도했다고 대답했는데, 다시 표해록 을 상고해보

21) 『일기』, 1572 임신년, 9.21, 筭言魚叔權稗說可觀 余欲騰之

22) 『일기』, 1572 임신년, 9.30, 奉常寺書員守京 來受稗官雜記寫次而去

23) 『일기』, 1573 계유년, 1.5, 以紙筆墨各一 送于魚叔權 獎其著稗官雜說也

24) 『일기』, 1573 계유년, 1.5, 邀見魚叔權飲酒 別坐尹春壽 亦會飲 與魚生論文字 問典故可觀之書 魚以國朝寶鑑,龍飛御天歌,梅溪叢話等書爲對

니 2일만이었다고 고쳐 답한 일화에서 볼 수 있다.²⁵⁾ 곧 보거나 들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 대강 말하게 되는데, 기록물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다시 상고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도 기록의 효과를 크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미암은 유배지에서 연구에 몰두하며 속몽구 를 저술하였는데, 그 책에 題한 글에서는 일기가 단순히 ‘날마다 기록하는’의 관점을 넘어선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미암은 옛날 楊大年의 경우를 보고, 諱을 기르는데 효제예의를 ‘날마다 기록하는 것’, 곧 ‘日記’가 효과적이라고 보아 이 책, 속몽구 를 짓는다고 동기를 밝혔다. 또한 공자의 贊易에 대해서는 지나간 언행을 기록하여 德을 쌓는 방편으로 삼았음을 모범으로 여겼다.²⁶⁾ 여기서 일기는 미암에게 단지 ‘날마다 기록한다는 의미’ 외에도 ‘孝悌禮義’의 덕목을 기록해 諱을 기를 수 있고, ‘덕을 쌓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암이 10년간에 걸쳐 꾸준히 일기를 기록하여 남긴 것은 일기의 효용적 가치를 크게 인식한 덕분이라 여겨진다. 미암은 외조부인 최부의 『표해록』을 간행하며 그날그날의 자세한 기록이 읽는 이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고 인식했고, 諱을 기르는데 효제예의와 같은 덕목을 날마다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파악하여 자신이 직접 『속몽구』를 저술해 실천한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을 기록하는 것이 諱을 기르고 덕을 쌓는 길이 됨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일기 기록의 직접적 동기를 밝힌 부분으로, 미암이 『미암일기』와 같은 방대한 양의 일기를 기

25) 『일기』, 1569 기사년, 8.28, 前日 上問自海南往濟州 乘風幾日而到 臣對以外祖崔溥 爲敬差官 得風一日到濟州 退而考漂海錄 則以二日到濟州

26) 권3, <續蒙求題>, (전략) 昔楊大年訓家人 以日記孝弟禮義之事 爲童稚養知之學 孔子贊易 以多識前言往行 爲畜德之方 此余所以撰是書之意也 陋邦寡聞 未敢自是 聊以俟精博鉅儒修而補之耳 嘉靖戊午二月生明 善山柳希春 書于鐘山土廬

록하는 데 적용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미암은 비록 자신이 문장에 재능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처신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자신을 극복하고 매일매일 기록의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미암에게 일기는 문장의 재능을 발휘하거나, 단순한 견문 기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기록으로 일으킬 수 있는 효과까지를 깊이 염두에 두고 실천을 하려는 목적에서 기록해 나간 것이라 파악된다. 그리하여 당시 일기문학이 성행하던 가운데, 일기에 대한 이 같은 효용적 가치 인식에 따라 실천성이 강한 기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미암일기』에 나타난 작가의식

1) 당대 公論에 대한 증언의식

미암일기 에는 일기의 기본적인 속성, 곧 사실에 관한 증언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일찍이 정하영 선생님이 밝힌 바로, “일기는 사실에 관한 증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에 기반하여 파악된 것이다.²⁷⁾

미암은 해배 직후인 1567년 12월, 고향에 있는 조상에게 성묘를 청하여 간 동안 지난달의 선조 備忘記를 보고, 선조가 茂長의 安瑞順이 명종 10년 올린 上疏를 통해, 을사년의 모반은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논의였다는 것, 그리고 송인수, 임형수가 무고하게 치죄를 당하고 윤원형의 일을 듣고 논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기록하였다. 곧 을사사화가 있었던 당시 명종이 어릴 때 반역으로 들었던 사실과, 公論이 놀리게 된 일이

27)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pp.39~40

윤원형에게 두려워하며 밝혀 이르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론을 알지 못하여 치죄를 하였다는 것이다.²⁸⁾ 또 열흘 뒤에도 고향에서 朝報를 받아보고 領相과 左相, 右相 閱箕, 領府事 李冀 등이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여 놓았다. 안서순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논의와 함께, 을사년에 무고하게 화를 입은 사림들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다 적고, 선조가 3공의 말대로 시행하라고 답한 내용까지를 기록한 것이다.²⁹⁾

미암은 이처럼 을사사화 당시 윤원형의 세력에 의해 당시 공론을 알지 못하고 무고하게 치죄를 한 일을 밝혀놓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기에 기록해 증언하였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기묘사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조광조에 관한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일기』, 1567 정묘년, 12.3, 伏都去月二十二日備忘記 傳曰 近日盡知公論 觀於安瑞順上疏 則論乙巳謀反不實之事濫誤之言也 大概宋麟壽林亨秀無辜被罪 尹元衡之事 得聞而論也 果然先王當初幼沖之時 聞之叛逆 而公論鬱抑之事 則畏於元衡 暫無啓達之人 故不知公論而治罪

29) 『일기』, 1567 정묘년, 12.13, 瞻仲冬二十四日朝報 領相議安瑞順, 鄭倫等事 反覆究觀 瑞順等之死 人心皆以爲冤悶 權姦當國 雖有所懷 畏懼其威 莫敢開口 當此繼述之初 雪釋冤枉 則先王在天之靈 亦豈不悅豫於冥冥之中乎 左相議 臣伏承安瑞順等伸釋事 往在已 無辜被罪之士 庶盡昭雪於今日 天心有格 人心可和 太平之治 將自此基矣 安瑞順等抗疏於求言之日 橫被庇護逆賊之罪 冤枉莫甚 公論鬱抑 不得不激發 啓達於經席之上矣 開釋乙巳等年無辜之人 乃是先王之遺意 雖在主上幼沖 慈殿垂簾之日 其於快釋無辜 以伸數十年憤鬱之氣 豈有未安之理 右相閱箕議 乙巳治罪之事 雖在先王 非先王之政也 乃是元衡之政也 被罪之中 冤枉最多 而畏元衡 莫敢開口進言 有所分下 朝廷之負先王大矣 安瑞順當元衡之時 心知其必死 而抗疏敢論 由於憤激而然也 還給籍沒之物 或放送 上教至當 冤枉之事 不特此也 蓋多有之 自上樂聞則豈不進言乎 聖教以爲人主幼沖 母后臨朝 欲使暫無猥濫之事 快釋未安云 聖教果當 然元衡之姦狀 乙巳之多冤 先王既已洞照 慈殿亦已盡知 先王將次第伸雪而未及者 不於慈殿臨朝之時 有所繼述 以畢先王之恩澤 則恐後而失其時 領府事李冀議 乙巳曖昧被罪之事 舉朝畏元衡 莫敢開口 而安瑞順等身在草野 忠憤所激 不避鈇鉞 敢爲上疏 此實出於憂君之試也 臣意非徒還給籍沒 亦宜錄恤 以慰冤魂 答曰 依三公議爲之

조정암이 진유로 대죄를 입어 어둠에 묻히고 눌러 지낸 지가 오십 년에 이르렀다. 영상 이준경과 윤근수가 먼저 그 뜻을 발의하고 기대승과 김침경 등이 화하며 간원의 상차가 지극히 간절하다. 옥당이 또 따라서 권하니 성상이 활연히 따르시고, 특별히 관작과 시호를 추증하게 하시니 이는 진실로 이른바 백년의 公儀가 정해진 바이니 성인이 位에 계시지 않았으면 누가 이를 수 있으리오. 사림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며 다행스러워 하였다.³⁰⁾

眞儒인 조광조가 죄를 입어 암흑에 묻혀 눌러 지낸 지 오십년이 되었다는 말로 시작하여, 이 당시 공론이 억압받고 있었던 상황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선조 초기에 비로소 조광조의 관작과 시호가 추증되었고, 이것을 ‘公儀가 정해진 것’이라 한 데서 미암이 그동안 공론이 억눌린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런데 다음 해인 1569년 6월 特進官 金鎧가 경연에서 기묘명현인 조광조를 비판한 말을 하여 옥당과 사간원, 사헌부 등에서 크게 논계하고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한 일이 있었다.³¹⁾ 김개는 상계 방자한 말을 하고 경

30) 『일기』, 1568 무진년, 4.10, 趙靜菴以眞儒被大罪 暗昧鬱抑者五十年于茲矣 至是李相浚慶, 尹根壽 首發其議 奇大升金添慶等和之 諫院之上筭 極其懇切 玉堂又隨而勸之 聖上豁然快從 特令追贈爵諡 此眞所謂百年公議定 而非聖人之在位 孰能成之 士林之感荷欣幸 爲如何哉

31) 『일기』, 1569 기사년, 6.10, 昨日朝講 金鎧所啓 (전략)且己卯年之事 則小臣以爲趙光祖學問用心 誠不偶然 但信人太過 雖徒能言者 亦以爲善人 遂皆引進 終致生事 其時小臣年十六 不知是非 厥後見其傳旨 則附己者進之; 異己者斥之云云 其時必不和平, 故傳旨之辭如此 (중략) 己卯之人亦多 豈皆盡善乎 善人之中 豈無或誤思 而有失之者乎 後世不忘己卯年者 只以其大綱是也 但年少人輩 如有不善者 則非之太過, 豈有一人以其身爲不善 而自服者哉 由此而致人心之不和矣 臺諫論大臣之失 則可也 如私議於家 則人心不無擾亂 此不可爲之事也 是以小臣啓之 豈有雜心哉 小臣得罪議論 心不保全 自當退去 今入經席 非有他意 而如是啓之 亦非以爲有益於吾身 而如是啓之 只欲自上知之 朝廷知之而已 同爲王臣 有兄弟之義 各有相愛可也 若至於交相疑畏 則夫豈好哉 幸聞議論之多 欲其防微而啓之 安有害人之心哉 臣雖無狀 自少無忮害之心 每以相愛爲好矣 且己卯年趙

기도 금천으로 귀향했다고 한다.³²⁾ 선조는 이에 김개를 罷職하는 데 그치지, 兩司에서 睿啓를 하여 己卯年의 禍가 다시 나타날 것을 경계하며 劾官작을 강구하여 允허하였다.³³⁾ 당시 기묘사림의 사후 처리 문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대적인 公論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반면 남곤에 대해서는 선조 초기에 劾官을 劾하라는 사림의 啓가 많아, 선조가 특별히 퇴계를 經筵에 入시키 하여 의견을 묻기까지 하였다. 퇴계는 남곤의 罪가 커서 반드시 劾官을 劾해야 사림들이 通쾌하게 여길 것이라 하며, 당시 公論을 따를 것을 권하였다.³⁴⁾ 그리하여 이튿날 뒤 옥당과 사간원, 사헌부가 남곤의 劾官하고 肅사스러운 罪상을 進啓하자, 선조도 조정의 논의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고 남곤의 劾官을 劾하하여 사림의 分개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는 詔敕을 내렸다.³⁵⁾

光祖 則雖純善之人 而但年少輩多有誤事 光祖反爲憂慮云 李滉所撰趙光祖行狀中 詳載其事 觀此則可知矣 但趙光祖欲爲國事 而死諸非命 此至今人心之所以哀痛 而不忘者也 小臣若至推考鞫問 則公緘傷音, 或不無虛言 故今欲盡達於上前 而退去矣

32) 『일기』, 1569 기사년, 6.11, 金鎧 初九日以特進官 肆言於上 卽歸京畿衿川云

33) 『일기』, 1569 기사년, 6.12, 兩司玉堂力劾金鎧 上以爲削奪黜送過重 且可罷職 / 1569 기사년, 6.16, 兩司合啓 金鎧 (중략) 往在己卯 朝著清明 而附己異己之言 一發於姦人之口 群賢遭禍 慘不可言 五十年來 士林催痛 金鎧媚嫉之心 老而益甚 鼓動邪說 追詆己卯 謀欲嫁禍於朝廷 使聖明少有疑貳 則己卯之禍 將復作於今日 豈不慘乎(후략) 答曰 如啓

34) 『일기』, 1568 무진년, 9.21, 上於夕講 特命李滉入侍 問滉曰 南袞 玉堂人多言其罪 請追奪官爵 但事在先朝 追治事難 滉曰 自上以事在先朝改正重難 此意甚是 公論請奪其爵 此言亦是 上問曰 卿兩是之 孰爲最是 滉對曰 南袞罪大 必削奪官爵 乃快於士林

35) 『일기』, 1568 무진년, 9.23, 進玉堂 與直提學閱起文, 校理辛應時, 副校理李海壽, 修撰洪聖民, 博士趙廷機共書 啓辭曰 南袞本以陰邪凶毒之資 濟以文墨之技 嘗以前承旨 聞有人非議大臣 以爲大變 卽釋袞服入告 其用心無狀 已見於此 及升宰列 知中廟眷注趙光祖 屢於經席言可大用 既已甘言媚態 不爲清議所容 論事之際 屢被沮抑 遂生陰賊之心 乃與沈貞, 李沆合謀 因緣洪景舟 潛通宮掖 浸潤

기묘사회와 관련한 그밖의 인물에 대해서도 미암은 당시의 공론으로 밝혀진 사실을 함께 기록하면서, 진실을 증언하려는 의식을 드러내었다. 林仁順이란 인물은 “평소에 윤원형과 密敎하여 종적이 비밀스러워 남들이 알지 못하더니 乙巳士禍를 엮어내었다”³⁶⁾고 사실만을 기록하였다. 일기는 짝막하지만, 평소의 행적이 을사사화를 일으키는 데 증거가 되도록 형용하여 그 정황을 짐작케 하였다. 또 조정에서 논의된 인물 가운데 탄핵을 받은 인물에 대한 기록도 실어놓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司憲府에서 啓한 大護軍 尹仁恕이다.

이날 午時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尹仁恕는 성품이 아첨하고 사악하며 교활함으로 넘어가, 그 평생 용심하고 행사하는 것이 지극히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를 타서 세력에 붙어 권간들을 번갈아가며 섬기고, 때 개가 되어 진신들에게 독을 흘려 나라를 병들게 하니, 그 죄악이 꼭 찬 지 오래인데 지금도 관작을 보존하고 있어 物情이 극히 분통해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삭탈관직을 명하시어 人臣으로 하여금 당을 짓고 간사한 독을 끼친 죄를 징계하소서.” 하였다. 상이 답하시기를 “윤인서가 비록 이와 같으나, 재상인 사람 관작을 삭탈하는 것에 이르는 것은 과하다.” 하시고 윤허하

萋斐 無所不至 又於昏夜 著賤人之服 潛伺首相鄭光弼家 肆其誘脅 以試大臣之意 光弼止之 袞與沈貞, 洪景舟 夜入神武門 以不測之說 震驚中廟 又豫勒武士 欲於其夜 撲殺光祖等 幸賴光弼泣諫於榻前 遂從流竄之科 袞等猶羅織不已 光祖, 金淨, 奇遵等 以次殺戮 一時名士 無不橫罹 或竄或死 其禍連延於五十年間 少有稍知向方之人 輒指爲己卯餘習 其狀殺士林 斲喪國脈 使好賢樂善之中廟 陷於有過之地 終於士氣斬伐銷鑠 將無以爲國 此袞之罪所以上通於天者也 司憲府, 司諫院 亦陳袞凶邪賊虐之罪 / 9.23, (전략) 近來 非但玉堂抗疏 經席累啓 下問于朝廷 上自大臣 下至論思耳目之官 一一陳列其罪惡 論議僉同 可謂不謀而同矣 宜舉首惡之人 誅姦諛於既死 以示好惡之正 以快士林之憤是昆 追奪官爵爲只爲下吏曹

36) 『일기』, 1568 무진년, 3.23, 林仁順 自平日密敎元衡 而縱跡陰祕 人莫之知 竟構乙巳之禍云

지 않으셨다.³⁷⁾

사헌부에서 윤인서란 인물이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임을 증명하여 삭탈관직을 청한 글이다. 그 본성의 사악함과, 평생에 마음 쓰고 일하는 것에서 볼 것 없음을 세세히 들어 죄악이 다 찼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관직을 보존하고 있어 사람들이 분해하고 우울해하는 정황을 설명하여 그의 죄를 벌하기를 청한 것이다. 선조는 이를 안다고 하면서도, 재상 벼슬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삭탈관직하지 못한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일은 다음날도 사간원에서 윤인서가 권간에게 아첨하고 士林을 해친 죄악을 들어 밝히며, 선조가 “公論이 이와 같으니 論劾을 받은 후 반드시 잘못을 고칠 것”이라며 윤허하지 않았다.³⁸⁾ 그러나 또 다음날에도 사간원에서 계하자, 공론을 거스를 수 없음을 알아차린 선조가 비로소 그 죄를 징계하도록 전교를 내렸다.³⁹⁾ 그리고 몇 년 후 윤인서는 파직되어 門外에黜送되는 인물의 명단에 오른다.⁴⁰⁾

이처럼 미암은 을사사화와 관련해 경연에서 보고 들은 정치적 公論에 대해 많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평

37) 『일기』, 1568 무진년, 3.12, 是日午 憲府啓 大護軍 尹仁恕 性本詔邪 濟以狡猾 其平生用心行事 極爲無狀 而乘時附勢 遞事權姦 作爲鷹犬 毒流搢紳 殄瘁邦國 其爲罪惡 貫盈久矣 至今尙保官爵 物情極爲憤鬱 請命削奪官職 以懲人臣黨姦邪毒之罪 上答曰 尹仁恕雖如是 宰相之人 至於削奪官爵過重 不允

38) 『일기』, 1568 무진년, 3.13, 院啓 尹仁恕本以陰罔小人 所行邪毒 因緣內附 邪謀百端 黨附權姦 毒害士林 其平生罪惡 不可勝言 而尙保官爵 物情極爲憤鬱 請速命削奪官職 沓兩司曰 今者公論如是 論劾後必改過 故不允

39) 사간원의 啓와 선조의 傳敎는 전날 사간원이 계한 내용과 거의 같아 생략한다. 앞의 주 참조.

40) 『일기』, 1574 갑술년, 6.6, 今日議得罷職不敍門外黜送之人 乃李銘, 高景命, 尹仁涵, 林復, 鄭愼, 金汝孚, 金鎮, 黃以瓊, 李成憲, 李彥忠, 尹仁恕, 沈鏞, 沈銓, 趙德源, 黃三省, 鄭揚, 姜克誠等也

가나 판단은 내리지 않고 극히 객관적으로만 기록하여, 관심을 드러내며 옮겨놓고 독자의 판단을 기다린 것이다. 그것은 미암 자신이 마치 史官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간 일로서가 아니라 공론을 그대로 밝히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욱 진실에 대한 증언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적으로 조정에서 미암이 성학과 주자학적인 학문적 기반을 마련해 근본적인 방향에서 士禍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곧 미암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근본적인 데에서 찾은 점이 의의가 있는 것이다. 미암은 자신의 체험과 見聞을 통해, 정치적인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여서는 해결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다 근본적이고 점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직접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근본부터 바로잡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2) 訛傳된 역사의 교정의식

미암은 근거가 충분치 않은 채 대강 그러하다고 알려진 사실이나, 역사와 문학을 통해 잘못 와전된 사례에 대해 의심을 버리지 않고 철저히 규명하여 이를 반박하고 역설하였다. 곧 미암은 역사적인 사실로 누구나 알만하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신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아는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들어 그에 대항하여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그 한 예를 살펴보겠다. 경연에서 미암은 역대에 와전된 일이 있어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세 가지 일에 대해 말하였다. 첫째, 범려가 서시를 신지 않았다는 것, 둘째, 한신이 일찍이 反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도간이 팔익의 꿈을 꾸고 발호의 뜻이 없었다는 것, 넷째, 이백이 채석강에 빠져 죽지 않았다는 따위가 그것이다.⁴¹⁾ 선조가 “도간의 일은 전일에

이미 십구사락을 진강할 때 지두에서 보았으니 다른 세 가지 일을 듣기를 원한다”⁴²⁾고 하자, 미암이 위에서 든 세 번째 일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답한다. 편의상, 이야기의 순서대로 숫자를 붙이도록 하겠다.

1. 대답하기를 “『오월춘추』를 살펴보면 서시가 뭍에서 죽었다고 하였습
니다. 부차가 망하고 범려는 卿相의 영화로움을 사양하고 五湖에 片舟를
타고 갔으니, 본래 서시를 실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 시인 두목지가
시에서 ‘서시가 고소대에서 내려 한 배에 치이를 따라갔네.’ 하였으니, 대개
고소대가 사라지자 서시가 바람에 떠돌며 의지할 바가 없는 것이 마치 치이
가 간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두목지가 이미 잘못하였고 후인이 잘못을
잇고 거짓을 이어서 사실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왕전이 자가 性之
인데 역대 여러 책을 참고하여 아울러 범려가 서시를 실었다는 일이 없다
하자 주자가 대단히 칭찬하였습니다.⁴³⁾

첫 번째 와전된 이야기는 범려가 서시를 배에 싣고 가서 함께 살았다고
전해지는 것이다. 오월춘추 를 보면 서시가 오나라에서 죽었다고 하는
데, 두목지의 시에 나오는 구절로 인해 잘못 전해진 것이다. 鷗夷는 가죽
으로 만든 자루인데, 吳王 夫差가 伍子胥를 죽여 그의 시신을 가죽자루
에 넣어 강물에 던졌고, 范蠡는 자신의 죄도 伍子胥의 경우와 같다고 여

41) 『일기』, 1574 갑술년, 2.5, 又陳曰 昨日 聖教下問七夕詩 臣既陳其姓氏之訛 因是
思之 歷代蓋有訛誤之事不可不辨者 如范蠡不載西施 韓信未嘗反 陶侃有八翼之
夢而無跋扈之志 李白不溺死於采石江之類是也

42) 『일기』, 1574 갑술년, 2.5, 上曰 陶侃事 前日已於所進十九史略紙頭見之矣 其他三
事願聞之

43) 『일기』, 1574 갑술년, 2.5, 對曰 按吳越春秋 西施死於吳 夫差之亡 范蠡辭卿相之
榮 扁舟五湖 本無載西施之事 而唐時人杜牧之時云 西施下姑蘇 一舸隨 鷗夷 蓋
謂姑蘇之滅 西施飄泊無所依 如鷗夷之去耳 牧既誤 後人承誤 踵訛以爲實 然宋
王銍字性之 歷考諸書 並無范蠡載西施之事 朱子亟稱之

겨 자신을 칭한 것이다. 서시가 이러한 차이를 따라 갔다고 한 두목지의 표현에 의해, 사람들이 서시가 범려와 함께 배에 실려 간 것으로 전하며 사실이라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범려가 서시를 배에 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송의 왕전이 역대 책을 참고해 밝혀내자 주자가 칭찬한 데서 그 근거를 내세워 반박한 것이다.

다음은 역사상에서 한신이 한고조를 모반하였다고 평가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이다.

2. 한신이 이미 재능으로 고제에게 꺼림을 받았고, 여후가 또 私幸한 審食其와 더불어 한신과 팽월을 죽이기로 모의한 까닭으로, 팽월에 대해서는 舍人에게 무고하게 죽이기를 명하였고 한신에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른바 진희로 하여금 反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인의 아우 사공저의 告狀에서 나온 말입니다.⁴⁴⁾

여후가 본래 재능이 있던 한신을 꺼려하여 심식기와 사사로이 출행하며 한신과 팽월을 죽이기로 모의하여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것이다. 審食其는 舍人으로 여후를 모시다 좌승상에까지 오르며 권세가 극대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어서 미암은 주자의 언급을 통해 더 근거를 내세웠다. 주자가 일찍이 한신이 반하였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고 칭하였기 때문이다. 여조 검이 심찰사상절과 대사기를 수정할 때 아울러 한신으로 모반하게 하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설을 삼았는데, 주자는 ‘실수로 사람 죄를 넣었다.’고 여겼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진희가 대

44) 『일기』, 1574 갑술년, 2.5, 韓信既以材能 見忌於高帝 呂后又與私幸審食其 謀殺韓, 彭 是故於彭越 令其舍人誣告而誅之 於信亦然 其所謂教陳豨反者 乃舍人弟謝公著之告狀也

상의 임무로 갈 때 빈객과 따르는 자가 천승이었고 주창이 그 빈객이 불법한 사건을 살피기를 청하자 이에 연루가 진희에게까지 미쳐 진희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반했으니, 한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⁴⁵⁾ 그래서 주자가 그에 대해 불쌍하다 여기고 『강목』에 특별히 ‘후가 유음후 한신을 죽이고 삼족을 멸하였다.’고 썼다 하였다. 또 정몽주도 중국에 들어가 유음후의 묘를 읊은 시에서 그러한 사실을 애도하였음을 드러내었다.⁴⁶⁾

그러나 이를 듣고 김우옹은 한신이 한왕과 초를 함께 치기로 약속을 하고 가지 않은 데서 어찌 한신이 군신의 예를 알았겠느냐 반박하고, 선조 또한 사마광이 한신이 화를 자위했다고 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⁴⁷⁾ 미암은 이에 초래에서 서로 속한 것은 평상시 군신과 같지 않다 하고, 당시 한나라 신하가 한의 왕을 足下라고 했으니 어찌 당시 군신의 예에 합당하겠는가고 반문하였다.⁴⁸⁾ 한신이 기약에 이르지 않은 것은 죄가 있지만, 온 제의 땅을 점거하여 삼분의 세력이 있었고 괴철이 반복하여 유도하였는데 ‘내 어찌 리를 향해 義를 저버리겠는가’ 한 데서는 대절이 늘

45) 『일기』, 1574 갑술년, 25, 朱子嘗稱韓信反無證 見呂祖謙修十七史詳節及大事記 并以韓信謀反被誅爲說 朱子以爲失入人罪 蓋陳豨赴代相之任也 賓客從之者千乘 周昌請按其賓客不法事 於是辭連及豨 豨懼誅而反 其不出於信明甚

46) 『일기』, 1574 갑술년, 25, 朱子推見至隱 於綱目特書后殺淮陰侯韓信 夷三族 蓋呂后與審食其 素欲滅諸將 故高帝之崩 秘不發喪 是時 陳平, 周勃將兵二十萬 以討盧綰在燕 灌嬰亦將十萬兵 在洛陽 酈商說審食其曰 若族誅諸將 周, 灌回軍 君輩無遺類矣 於是乃發喪 又按漢書刑法志 韓, 彭之誅 呂后皆令先斬其舌 無乃懼言已穢行而爲是濫刑耶 前朝鄭夢周入中國 詠淮陰侯墓云 嗣子孱柔諸將雄 高皇無復念前功 楚王飲恨泉臺下 千載知心只晦翁 上曰 此詩再誦之 js臣卽再誦之

47) 『일기』, 1574 갑술년, 25, 金字顯曰 韓信豈知君臣之義 與漢王期共攻楚而不至 上曰 司馬公亦以韓信爲自取 何

48) 『일기』, 1574 갑술년, 25, 臣對曰 草萊相屬 與平常君臣不同 當時漢臣稱漢王爲足下 此豈當時君臣之禮乎

름하였다고 보았다. 또 항우가 처음 멸하자 한왕이 달려가 제왕의 벽에 들어갔는데 그 정군을 다 빼앗지 않고 다시 초왕으로 봉했으나 신이 불평하는 기색이 없었고, 先儒가 他日에 의심하여 사로잡혔다고 여기므로, 이는 본디 한왕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마천과 반고는 한나라 신하로서 直敍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의 사마공 대계도 그 모반을 믿은 것이라 하였다. 사마온공의 성품이 순후하여 매우 밝지 못했으니 한갓 평일의 군신의 예만을 잡고 초래에 상속의 사람을 책하여 신이 무죄한데도 사로잡혀 열후로 낮추어졌으니 그가 噲와 더불어 같은 등급을 부끄러워하여 怏怏不落한 것은 있지만 만약 모반하였다면 무함이 심한 것이라 하였다.⁴⁹⁾

3. 또 말하기를 “이백이 친구와 더불어 채석강에 배를 띄우고 술에 취하여 손으로 달그림자를 잡으려고 한 것은 있었지만, 몸을 가라앉힌 일은 없습니다. 그 후에 이백이 동성인 이양빙이 당도령이 되었는데 이백이 찾아가 의지했고, 소종이 죄습유로 불렀으나 이백이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관찰사가 이백의 손녀 두 명을 구출하였는데, 손녀의 말을 듣고 이백이 일찍이 아끼던 고숙 사가 청산에 처음 장사지낸 기슭에서 청산으로 옮겼습니다. 대개 시인의 말이 많이 부화하고 허탄하니 마자재가 이백을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랐다는 따위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⁵⁰⁾

49) 『일기』, 1574 갑술년, 2.5, 信之愆期不至 固有罪矣 據全齊之地 有三分之勢 蒯徹反覆教誘 而斷然以爲吾豈可向利而背義 此其大節之凜然處 又項羽初滅 漢王馳入齊王壁 悉奪其精軍 更封楚王 而信略無不平之色 先儒以爲他日疑而虜之 是固漢王之過也 司馬遷, 班固 以漢臣 固不能直書 在後之司馬公, 戴溪 亦信其謀反 溫公性醇厚而不甚明 徒執平日君臣之禮 以責草萊相屬之人 信無罪被虜 降爲列侯 其羞與噲伍 怏怏無聊則有之 若以爲謀反 則誣之甚矣

50) 『일기』, 1574 갑술년, 2.5, 又曰 李白與友人泛舟於采石江 醉中以手欲捉月影 則有之矣 沈身則無是事 其後白之同姓李陽水 爲當塗令 白往依之 肅宗以左拾遺徵之 而白已卒 其後觀察使恤白之孫女二人 聽孫女之言 以白嘗愛姑熟謝家青山 自初葬山麓 而遷葬于青山 蓋凡詩人之詞 類多浮誕 如馬子才李白騎鯨飛上天之類 是也

이백이 채석강에 배를 띄우고 달그림자를 잡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몸을 가리웠던 일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암은 그 후의 이백의 사적을 통해 밝혀내었다. 이는 시인의 부화하고 허탄한 말에 의한 것이며, 더 심한 경우 이백이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올랐다고 한 마자재의 말을 들어 주장의 설득력을 얻었다. 미암은 시인의 말에 불신을 표하고, 증거가 될 만한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만 믿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암은 경연에서 주자시문에 대해서도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주자의 <칠석>시와 <부자기문>은 주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장하였다.⁵¹⁾ 선조가 “주자 <칠석>시에서 다룬 詩想이 ‘이치에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칠석시가 주자의 작품이 아니라 의심하자, 미암은 이를 시인의 작품이지 주자의 작품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다. 미암은 주자대 전 예도 이 작품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연주시격』에 주자의 작품이라 기록한 것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암은 <부자기문>도 『서경 의 고문 대전에 주자가 지은 것이라 되어 있지만, 실은 주자가 지은 것이 아닌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퇴계도 剛而 李楨에게 보내는 편지에, “<부자기문>은 젊어서 보며 마음에서 주자의 말이 아님을 의심하였고, 기명언도 그렇게 말하였다”⁵²⁾고 한 바 있다.

그런데 그 후 동강 김우옹(1540~1603)과 미암이 같이 자리한 경연에서 주자의 <칠석>시에 관해 논쟁이 일어났다. 동강은 남명 조식의 문인

51) 『일기』, 1574 갑술년 24, 上曰 朱子七夕詩 此何謂也 臣對曰 此卽織女牽牛雙扇開 年年一度過河來 莫言天上稀相見 猶勝人間去不廻 聯珠詩格 以爲朱子詩 此誤錄也 上曰 天上豈眞有二物相往來 此必無之理也 對曰 此乃詩人之作 非朱子之作 故臣亦積年疑之 及還朝後 遍考大全續集別集 皆無之 亦猶祝伯昌不自棄文 古文大全 以爲朱子之作 其爲訛傳 審矣 上曰 予每疑此詩 恐非朱子之作 今幸得聞之 稱嘆至再

52) 이황, 『退溪先生續集』卷之四, <答李剛而>, (전략) 不自棄文 滉少時見之 心已疑其非朱子語 奇明彦亦云云 (후략)

으로 27세에 남명의 명을 받아 天君傳 을 짓고, 경연에서 강의하였으며 주자의 『資治通鑑綱目』에 이어 續資治通鑑綱目 을 저술하기도 할 정도로 주자학에 대해 해박하였다. 그런데 연주시격 에 주자의 작품이라 실려 있는 <칠석>詩에 관해 주자의 시로 보는 데에 대해 선조가 의문을 제기하자, 미암은 주자의 작품이 아니라고 답하고 게다가 <부자기문>과 <훈몽시>도 주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강은 주자가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작품이므로 의심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선조는 동강의 말을 그르다고 여기며 의심을 면치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후일 선조가 이 일을 반성하고 깨달아, 성현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고 믿어야 할 따름이라 하였다고 덧붙여 놓았다.⁵³⁾ 미암은 고봉과 편지를 통해 <부자기문>이 실제로 주자의 작품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⁵⁴⁾, 자신도 의문하던 점을 풀었기에 선조에게 사실을 전한 것이다. 미암이 파악하고 있는 주자의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경연일기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 말하기를, “주자의 문장은 혹자는 그 혹문 등의 글이 支離하다고 의심 하기도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도리를 드러내 밝힘이 남김이 없게 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이 자세히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周易의 本義와 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글이 지극히 간략하니

53) 金字題, 『東岡集』, 권12 『經筵講義』, 갑술년, 二月一日 (전략) 上才極高邁 雖古聖賢事 未嘗遽信 而多所疑問 一日 上問聯珠詩有朱子七夕詩云云 朱子何爲此怪誕語乎 柳希春曰 此非朱子之詩 聯珠誤稱朱文公也 且如不自棄文 亦非朱子所作 而今人誤傳也 或言年譜末所附訓蒙詩 亦非朱子作 宇顛曰 不然 此非朱子 不能作 不可疑也 上喜曰 果然也 七夕詩 予非卿言 終未免疑也 後日筵中 上曰 昨因七夕詩事 有所省悟 凡聖賢不可疑 只當篤信耳

54) 『일기』, 1568 무진년, 54, 余以奇明彥之言語不自棄文 實非文公之作 當通書于完山府 使之削去 以書報明彥 明彥深喜其相合 又云 胡氏仁者不爲之說 蒙先生指示 得開昏蔽云云

대개 자세하고 간략함이 각기 마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⁵⁵⁾

주자의 문장이 支離하다고 한 것은, 주자 당대에 아호사에서 육구연과 만났을 때 육구연이 시를 지어 비판한 내용 속에도 있었다. 주자의 기록에는 없으나 『상산어록』과 『상산연보』의 기록에 의하면, 육구연이 시를 지어 “易簡의 공부는 마침내 변함없이 위대하나, 支離한 사업은 끝내 부침한다(易簡工夫終久大 支離事業竟浮沈).” 라고 표현하여, 주자의 작업을 支離하다고 비판한 것이다.⁵⁶⁾ 그러나 미암은 실체는 그렇지 않으며, 도리를 發明하여 남김없이 말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 이해하였다. 그리고 『周易』의 本義 같은 글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어, 이처럼 자세함과 간략함에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고 칭송하였다.

주자 문장의 이러한 특징은 독서법에서 나온 것으로, 주자가 石洪慶에게 술회한 글에서 볼 수 있다. 주자는 17세에 謝上蔡의 논어』를 읽으며, 처음엔 붉은 연필로 해석이 뛰어난 곳에 줄을 긋고, 다시 숙독한 후 붉은 줄 가운데 더욱 중요한 부분에 검은 줄을 긋고 다시 숙독, 음미하며 검은 줄 가운데 정수가 되는 부분에 푸른 줄을 긋고 그 푸른 줄의 또 정수를 추출하여, 나중에는 얻을 것이 매우 적어져 한두 구절만이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 한다. 이런 방법을 주자는 博에서 約으로 응축하는 독서법에 한정하지 않고, 삼라만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응축시켜 다시 그것을 단 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으로 환원하는 사고법으로 발전시켰다.⁵⁷⁾ 미암이

55) 『일기』, 1574 갑술년, 2,4 又曰 朱子文章 或疑其或問等書支離 其實不然 蓋主於發明道理無餘蘊 故不得不如是之詳盡 至如易本義 辭極簡約 蓋繁簡各有攸當也 諸臣進言畢 以次退

56) 미우라 쿠니오 저, 김영식·이승연 역, 『인간 주자』, 창작과비평사, 1996, pp.140~143

57) 미우라 쿠니오 저, 앞의 책, p.35

주자의 『周易』 본의에 대해 파악한 간략함은, 주자의 독서법에서 얻어진 점을 간파한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미암은 주자의 시문이라 하여 무조건 믿고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주자의 것인지 엄격히 증명한 후에야 믿었던 것이다. 미암은 스스로도 의심이 가는 글을 聖賢이 남긴 것이라 하여 믿지는 않았는데, 이는 주자의 詩文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대하되, 주자의 시문으로서 이치에 합당하고 사리에 맞는지를 판단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 결론

이상에서 미암이 일기를 저술하게 된 배경을 을사사화와 관련한 체험, 그리고 일기에 대한 효용적 가치 인식이 있었던 데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해배 후 미암이 경연에서 당대 공론으로써 밝혀놓은 사실과 역사적으로 잘못 전해지는 일화나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교정한 언급을 통해 증언의식을 드러낸 면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서가 을사사화 이후로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 장성에서 은거하여 지내며 사림의 연결망 역할을 한 점을 두고 ‘비정치적 일상의 정치성’으로 파악한 논문에서는, 하서와 끝까지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한 이는 유희춘이라고 밝힌 바 있다.⁵⁸⁾ 김인후는 유희춘, 허엽과 더불어 김안국의 학문적 입장을 계승한 문인으로, 그 시에서 보이는 비분강개의 풍격은 절의 정신을 높이 인정받는다.⁵⁹⁾ 미암이 유배 갔을 때 하서와 서로 그리워하며 편

58) 백승중, 「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비정치적 일상의 정치성」, 『진단학보』 제92집, 진단학회, p.120

59) 우용순, 「16세기 사림파의 내적 분화와 그 문학적 지향」,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p.95

지와 시를 주고받은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미암은 하서와 같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지 않고 조정에 남아 있다가 을사사화를 당해 유배를 갔고, 유배에서 돌아와서는 조정에서 경연활동을 하며 매일 매일의 일기 기록을 통해 하서의 일상의 정치성을 이어나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는 미암이 기준으로 삼은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리라 보인다. 미암은 조정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데 中正함으로 存心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두 봉당이 있을 때 한 쪽이 패하면 중립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암은 중정함으로 존심하여 치우쳐 무리한 바가 없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이것은 마음가짐 자체의 중요함을 강조한 말로, 사사로운 정치적 견해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진정 중립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가짐 자체가 중정한 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리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사사로운 뜻으로 해하려는 자에게는 또 정색으로 쳐내고, 두려워서 혹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일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격동하면 무익하며 큰 해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⁶⁰⁾ 그러므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정함으로 존심하는 것이라고 일러 준 것이다.

이러한 문답이 오간 데에는 당시 정치적으로 동인과 서인의 봉당이 나누어지고 있던 상황이 전제해 있었다. 미암이 고향에 내려가 있던 1575년 12월에 유몽정이 찾아와 심의겸과 김효원 두 朋黨이 서로 다투는 일을 말해주고, 士林들이 미암과 이이만이 中立하여 치우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⁶¹⁾ 그리고 미암이 이듬해 다시 조정에 돌아왔을 때 위와 같은 질문

60) 『일기』, 1576 병자년, 10.4, 朝 典籍姜緒來 謂余曰 兩朋角立 終必有一敗 中立者當如何 余曰 當以中正存心 而無所偏黨 敢有以私意害人者 當正色攻之 不可畏其姦鋒而回惑也 若事未著現 而遽然激發 則非徒無益 又有大害矣 姜君曰 敢不服膺

61) 『일기』, 1575 을해년, 12.15, 嶺南軍威宰柳夢井過訪 余酒接談話 語及沈, 金兩朋相擊之狀 又言士林以先生及李公珮 爲中立不倚云

을 받은 것이다. 당시 봉당은 이전 대에 사림들이 겪었던 사회의 여파를 떠올리게 하는 문제였기에, 미암이 을사사화에 임억령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처신했던 경험과, 이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모색하며 답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미암은 잘못 와전된 역사에 대해 확실한 증거와 함께 주자의 언급을 바탕으로 변론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1. 범려가 서시를 함께 데리고 도망가 살다 죽었다는 것은 시인 두목지의 표현에 의해 후세인이 오해를 하여 잘못 전해진 것이며, 2. 한신이 모반하였다는 것은 역사가 사마온공에 의해 잘못 평가된 것이고, 3. 이백이 채석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시인이 허탄하게 여기는 것들이라고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암 자신이 근거가 확실한 믿음을 중시한 만큼 자신도 남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던 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암이 가장 깊이 믿은 대상은 주자였고, 따라서 주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말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며 한편으로 저서를 다수 지을 수 있었다.

미암은 당시 경연 강의와 편지 교류, 또 산문 문장 등을 통해 주자학과 관련해 토론을 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심화한 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미암은 주자학을 자신의 사상으로써 깊이 내면화하여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주자의 견해를 주장의 근거로 삼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주자가 詩文에서 말하는 義理와 本義에 대해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를 파악하고 주자의 詩文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어 보여주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선조대 경연에서 주자학의 기초가 되는 서적들을 저술하는 데 힘써, 당대 학문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참고문헌

자료

- 유희춘, 『眉巖集』, 한국문집총간 34집, 민족문화추진회, 1989
_____, 『眉巖日記草』 全5권,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1936
_____, 국역 『미암일기』 1~5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2~1996
金宇顒, 『東岡集』, 한국문집총간 50집, 민족문화추진회, 1990
_____, 국역 『東岡先生全集』 1~3권, 晴川書院, 1995
이황,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29·30·31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최익현, 『勉菴集』, 한국문집총간 325·326권, 민족문화추진회, 2004
국역 『大東野乘』, 민족문화추진회, 1971
『국조보감』, 민족문화추진회, 1996~1997
『한국문집총간해제』 2, 민족문화추진회, 1991

논문과 단행본

- 국어국문학회, 『고전산문연구』 1, 태학사, 1998, pp.1~438
고영진,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pp.1~504
미우라 쿠니오 저, 김영식·이승연 역, 『인간 주자』, 창작과비평사, 1996, pp.1~279
백승중, 「16세기 조선의 사람정치와 김인후-비정치적 일상의 정치성」, 『진단학보』 제92집, 진단학회, p.120, pp.93~129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 pp.1~329
_____, 「『미암일기』의 서지와 사료적 가치」, 『퇴계학연구』 제12집, 단국대 퇴계학 연구소, 1998, pp.117~151
우응순, 「16세기 사림파의 내적 분화와 그 문학적 지향」,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p.95, pp.1~386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pp.25~43

ABSTRACT

The Study on Mi-Am Ilgi's Writing Ground and Writer's Consciousness

Lee, Yeon-Soon

Mi-Am(미암)'s learning was appraised a respect of Juja(주자), with propound knowledge. Then he showed the course of Jujahak(주자학)'s internalization at large. And he read that the prose of Juja(주자) light Uiri(義理) and is as good as bonui(本義). Then Chilseok(七夕) poetry and Bujagimun(不自棄文) was not Juja(주자)'s work. This is the same view with Ki Dae-Seung(기대승), Lee Hwang(이황), and show Mi-Am(미암) did not followed Juja(주자) blindly.

Key Words Mi-Am(眉巖), Yu Hi-Chun(柳希春), Eulsa sahwa(乙巳士禍), Writing Ground, Writer's consciousness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0. 28
게재확정일 : 2008. 11. 14